

예정된 끝까지 여자수구 “계속하고 싶어요”... 눈물바다

사상 첫 한국 여자 수구 대표팀의 마지막은 '눈물 바다'였다. 한국과 쿠바의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여자 수구 15·16위 결정전이 열린 22일 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 수구경기장.

경기 종료 전부터 대표팀 선수들은 눈물을 흘려내느라 바빴다. 쿠바에 0-30(0-8 0-9 0-6 0-7) 패배가 확정된 후 한국 여자 대표팀 선수들은 서로 부둥켜안고 닭똥같은 눈물을 펄펄 쏟아냈다. 관중석에 인사를 할 때도 선수들의 눈에는 눈물이 그득했다. 믹스트존을 지나가는 선수들의 눈은 퐁퐁 부어있었다.

수구 불모지인 한국에서 여자 수구 대표팀이 꾸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최국 자격으로 대회 출전을 얻자 대한수영연맹은 지난 5월 말에야 부랴부랴 대표팀을 꾸렸다. 한국에 여자 수구팀이 없어 전문 수구 선수는 단 1명도 없는 대표팀이다. 대부분 경영 선수들로부터 이뤄진 대표팀은 중학생 2명, 고교생 9명, 대학생 1명, 일반부 1명이 포함됐다. 훈련 시간조차 짧았다. 지난 6월 2일에야 인천선수촌에서 훈련을 시작해 불과 40여일 동안 훈련하고 대회에 나섰다.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과 대표팀은 비교가 힘들 정도로 기량 차이가 났다.

이들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대표팀의 이번 대회 목표는 '1승'도 아닌 '한 골'이었다.

한국 여자 수구 사상 최초의 공식 경기인 헝가리와의 조별예선 1차전에서 대표팀은 0-64라는 기록적인 패배를 떠안았다. 하지만 러시아와의 2차전에서 역사적인 첫 골을 넣는데 성공했다. 물론 결과는 1-30 패배였다.

대표팀은 점차 나아진 경기력을 보여주며 캐나다와의 조별예선 3차전에서는 두 골을 넣었고 2-22으로 졌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13-16

위 결정전에서는 23점차로 대패한 가운데서도 세 골이나 터뜨렸다.

대표팀의 성적은 5전 전패, 대회 최하위인 16위다.

하지만 선수들의 눈물은 끝까지 해서 느끼는 억울함이 아니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을 동고동락한 이들과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 흘린 눈물이다. 훈련하고 대회를 치르면서 서로를 격려하며 버텨 온 대표팀 선수들은 서로 "수고했다, 고생 많았다"는 이야기를 나누다가 눈물을 더 쏟았다.

주장 오희지(23·전남수영연맹)는 "이제 떨어지야 한다는 아쉬움에 울었다. 잠깐이었지만, 많이 정답었고, 그래서 더 속상했다"고 밝혔다. 경다슬(18·강원체고)은 "이번 대회에 아쉬운 점은 없다. 다들 열심히 뛰어왔다. 순간순간 그 당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김예진(18·창덕여고)도 "친구들과 헤어져야 하는 것이 많이 섭섭하다. 짧은 기간 함께했지만, 합숙하면서 훈련하며 하루종일 같이 있다보니 짧은 기간에 정이 많이 쌓였다. 곧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는데 그게 많이 슬프다"고 울상을 지었다.

정해진 레인에서 홀로 기록과 싸우는 경영 선수로만 있었던 이들에게 서로 호흡을 맞추며 해나가야 하는 단체종목은 생소했다. 공을 가지고 몸싸움을 해야 하는 것도 익숙하지 않았다. 익숙해지기에 훈련 기간도 짧고, 마땅히 경험해볼 상대도 없었다.

김예진은 "몸싸움이 가장 적응이 되지 않았다. 대처 방법을 잘 몰랐다. 다른 팀과 하면 어떻게 다가올지, 잡힐지 모르니까 그게 가장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두 경영 선수였다가 공으로 하는 수구로 넘어왔다. 수구는 많이 해봐야 하는데, 기간이 너무 짧았다. 단기간에 힘들게 했다"며



22일 오전 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 수구경기장에서 열린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여자 수구 대한민국-쿠바의 15-16위 순위결정전 경기, 한국이 30-0으로 패했다. 경기 종료 후 선수들이 관중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여자수구 15·16위 결정전서 쿠바에 0-30 패배 역대 최초 여자수구대표팀 5전 전패...대회 끝나면 해체 “다시 한다면 더 오래 훈련했으면...1승이라도 하고싶어”

“다시 시작한다면 조금 더 오랫동안 훈련했으면 좋겠다. 지금보다 열심히 해서 1승이라도 하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서로 단합해 팀을 꾸려야 한다는 생각은 강했다. 오히려 짧은 것은 선수들이 더 땀 흘려야 하는 계기가 됐다.

경다슬은 “한 달이었지만, 그 한 달이 정말 절실했다. 한 달을 연습하고 일반인이 세계선수권대회에 나서고 있는 메시와 축구하는 것과 같다”며 “그러려면 원하든, 원하지 않

든 뭉칠 수밖에 없었다. 무조건 뭉쳐야 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오희지는 “개인적인 종목을 하다가 팀을 꾸려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이 있었고, 대표팀 13명이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다”며 “그래서 팀워크가 생기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했다.

수구 선수로 된 것은 이들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됐다. 김예진은 “불행했는데 지금은 꽃길을 걷고 있는 느낌”이라고 했다. “경영에서 잘하는 선수가 아니었는데 여기

와서는 다 똑같지 않다. 한 명이라도 개인으로 하면 안 된다. 단체라서 좋았다”며 “혼자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같이 잘해야 하는 것이 좋았다. 혼나도 잘해도, 슬퍼도 다같이 하니 좋았다”고 말했다.

경다슬은 “이기적인 삶을 바꾸는 종목이 수구다. 지금까지 정해진 레인에서 혼자 뛰니 나만 생각하면 됐는데, 이젠 13명이 다 집중해서 뛰지 않으면 안 되는 종목”이라고 밝혔다.

수구의 매력에 푹 빠진 이들은 스스로 한국 여자수구의 ‘씨앗’이 되

고자 한 한결같이 수구를 계속하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오희지는 “수구를 계속 하고 싶다. 너무 재미있고 매력적이다. 흘러드는 것이 있다. 블랙홀 같은 느낌”이라며 “서울, 인천에 클럽팀이 있는데 전남에서도 클럽팀을 꾸려보려고 한다. 마스터스 대회도 참가하고 하면, 여자 수구팀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도전해보려고 한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김예진도 “만약 여자 수구팀이 만들어지면 전향할 생각도 당연히 있다. 대표팀을 만들게 되면 선발전을 치르게 될텐데 열심히 해서 다시 수구 대표팀으로 뛰고 싶다”는 마음이다.

경다슬은 “계속 수구를 하고 싶다. 남자면 실업팀이라도 있는데 우리는 아니다. 팀원들과 수구를 계속 하고 싶다”고 간절한 바람을 내비쳤다.

뉴스

‘4연패’와 ‘약물’, 앞으로도 계속될 쑤양 논란

자유형 남자 400m 결승 3분42초44 경영 첫 금메달



21일 오후 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린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경영 남자 자유형 400m 결승경기, 금메달을 차지한 중국의 쑤양이 시상대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은 호주의 맥 호튼.

이번에도 최강자는 쑤양(중국)이었다. 아무도 이룩하지 못한 세계선수권 자유형 400m 4연패다. 아이러니하게도 사상 초유의 업적은 그가 감추고 싶어 하는 약물 논란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쑤양은 21일 오후 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린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자유형 남자 400m 결승에서 3분42초44로 터치패드를 찍었다. 맥 호튼(호주)의 추격을 0.73초차로 따돌리고 이번 대회 경영 첫 금메달리스트가 됐다.

2013년 바르셀로나 대회 때 처음 자유형 400m 시상대를 정복한 쑤양은 2015년 카잔 대회, 2017년 부다페스트 대회에 이어 광주 대회까지 제패하며 4연패의 금자탑을 쌓았다. 1998년과 2001년, 2003년 3연패를 차지했던

호주 수영의 전설 이안 스프를 제치고 최다연속 우승자로 이름을 남겼다.

내년이면 한국 나이로 서른이 되는 쑤양은 데니스 코터럴 코치의 지도 아래 여전한 최정상급 기량을 유지하고 있다. 198cm라는 탁월한 신체 조건과 본인 스스로 “매일 엄청나게 운동을 한다”고 표현할 정도의 강도 높은 훈련이 빛어낸 결과다.

지난 8년 간 쑤양이 메이저대회 자유형 400m를 놓친 것은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이 유일하다. 호튼에게 진 3년 전 올림픽을 제외하면 쑤양의 패배로 기억되는 레이스는 한 차례도 없다.

역대 최고 선수 반열에 오르기에 손색이 없어 보이는 쑤양에게도 약점은 있다. 두 차례나 불거졌던 약물 논란은 그의 평가가 극명하게 나누는 결정적 인자이다.

쑤양은 2014년 5월 중국반도핑기구(CHINADA)가 실시한 도핑 테스트에서 트리메타지딘(Trimetazidine) 양성 반응을 보여 3개월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혈관확장제 중 한 가지인 트리메타지딘은 심장 기능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약물로 그해 1월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 리스트에 등재됐다.

쑤양은 3개월이라는 짧은 징계 기간 이후 곧장 복귀해 인천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를 목에 걸었다.

잠정하단 쑤양은 지난해 다시 한 번 사고를 쳤다. 지난해 9월 도핑 검사관이 집을 방문했을 때 혈액이 담겨있던 샘플을 망치로 훼손해 테스트를 회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제수영연맹(FINA)은 이와 관련한 징계를 내리지 않은 채 경고 조치만 했다. 이를 이해하지 못한 WADA는 FINA를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했다. CAS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이번 대회에 정상적으로 출전했지만 다른 국가 선수들의 따가운 눈초리가 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서도 2위 호튼은 쑤양에게 한 번도 시선을 두지 않았다. 메달리스트들이 모여 사진을 찍을 때 뒷짐을 진 채 한 발짝 물러섰다. 쑤양과의 모든 것을 부정한 호튼은 3위 가브리엘 데티(이탈리아)와는 사이 좋게 어깨동무를 하고 기념 촬영을 한 뒤 활하게 경기장을 빠져나갔다.

쑤양은 자유형 400m 예선을 마친 뒤 “이번 대회는 내년 올림픽을 앞두고 좋은 리허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고 선수 반열에 오르기에 손색이 없어 보이는 쑤양에게도 약점은 있다. 두 차례나 불거졌던 약물 논란은 그의 평가가 극명하게 나누는 결정적 인자이다.

하이다이버, 최고령 선수 26년차-‘나홀로 출전’ 10개국

최고령 45세·최연소 19세
18개국 중 5명으로 최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최고 흥행 종목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하이다이빙 경기가 22일부터 사흘간 열전에 돌입한다.

20여 m에서 수조를 향해 뛰어드는 극한의 스포츠에 도전하는 선수들 면면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수영대회 조직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열리는 하이다이빙에 도전하는 최고령 선수는 1974년 9월 11일 생인 콜롬비아의 올랜도 두크다.

올해 나이 45세인 그는 볼록을 넘긴 나이에 남자 부문 27m 높이 다이빙 플랫폼에 선다.

여자 최고령 선수는 올해 34세인 멕시코의 아드리야나 히메네즈로, 1985년 1월 20일생이다.

최연소 선수는 여자 부문에 출전하는 콜롬비아의 마리아 파올라 킨테로(19)로, 2000년 6월 23일생이다. 남자 최연소 선수는 1999년 10월 14일 생인 멕시코의 디에고 리조리베로(20)다.

최고령인 두크와 최연소 킨테로의 나이는 차는 26세다.

경기에 출전하는 남자 선수 평균 연령은 31.7세다. 여자 선수 13명의 평균 연령은 26.3세다.

당초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린 선수는 남·녀 통틀어 37명이었으나, 2명이 최종 불참을 결정해 35명(남 22명·여 13명)이 출전한다.

루마니아의 콘스탄틴 포포비치와 미국의 진저 후버는 각각 남자·여자 경기에 출전하려 했으나 최종엔트리에서 제외됐다.

특히 1974년 12월 6일에 태어난 진저 후버는 올해 45세로 남자 최고령



2019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 9일째인 20일 오후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하이다이빙 경기장 20m 도약대에서 선수가 훈련을 하고 있다.

선수 두크와 동년배여서 출전에 관심을 모았다.

남·녀 하이다이빙 경기에 출전하는 국가는 모두 18개국이다. 우리나라는 하이다이빙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가 없다.

출전 선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남·녀 각각 3명과 2명이 경기에 나서는 미국이다. 이어 영국과 멕시코는 선수 4명이 출전한다.

단 1명만 출전하는 국가는 벨라루스, 브라질, 캐나다, 체코,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폴란드, 스

위스 등 10개국이다.

하이다이빙은 여자는 20m, 남자는 27m 다이빙 플랫폼에서 진행된다.

예선 1·2 라운드와 결선 3·4 라운드의 합계를 매겨 순위를 정한다. 예선 성적이 메달색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초반부터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하이다이빙 남·녀 경기는 오는 24일까지 사흘간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 하이다이빙 경기장에서 펼쳐진다.

뉴스